

영암, 제44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성료

군민 및 경향각지의 향우회원 등 4천여명 참석 월출산 바우제·군민의날 축하쇼·기념식 등 진행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영암군민 대화합 잔치인 제44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영암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과 경향 각지의 향우회원, 기관단체장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월출산 바우제'를 시작으로 향우와 함께 하는 '군민의 날 축하쇼'에는 역대 가장 많은 구름 관중이 몰려 이날 오후에 있었던 한 국트트가요센터 개관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기념식에서 '영암군민의 상'은 HMG 김한모 회장이 수상했으며, '지랑스런 월출인의 상'은 윤봉남 경기도 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최장용 재경군서면향우회장, 박복현 재서귀포향우회장이

수상했다. 영암군을 빛낸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지랑스러운 공무원상'에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강철 사무관이, 감사패 수상자로는 김성재 재경영암군향우회부회장, 공로패 수상자로는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회장 박재영), 효자상에는 조형중(덕진면) 씨, 효부상에는 마세나시로릴라(시종면) 씨가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기념식에 앞서 영암군민장학기금으로 신창석 재경영암군향우회장이 2천만원을 기탁했으며, 박복현 재서귀포향우회장과 고창희 현대호중공업 협력회사 협의회장, 광광호 컨라이팅 대표, 박찬모 우영기술단 대표가 각각 1천만원을, 윤봉남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장은 300만원, 황성오 삼호농업협동조합장이 500만원을 기탁해 군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영암군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영암군민 대화합 잔치인 제44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또한, 이웃돕기 성금도 줄을 지어 김한모 HMG 산업개발 회장이 2천만원을, 창단 후 3년동안 17회 장사를 배출한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에서도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훈훈하고 온정 가득한 영암만들기에 크게 기여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미래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만들기 위해 4대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 영암의 새 역사를 6만 군민과 16만 향우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신안, 안전한국훈련 3일째 지진대응 대피훈련 실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안전한국훈련 3일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제413차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동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훈련으로 군 본청직원과 읍면사무소 전직원이 대피 훈련을 했고 민간시설 자율지정 시범훈련으로는 압해읍 소재 "압해생태요양병원"이 자율참여했다고 밝혔다.

목포소방서와 함께한 이번훈련은 지진과 동시에 군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안내방송을 통한 상황전파, 지진행동요령교육, 지진 및 화재대피 이동경로 학습훈련과 심폐소생술 시범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 경주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발생을 계기로 꾸준히 행동매뉴얼 정비 및 지진대응 주민홍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진발생에 대비해 지진 속외 대피소 31개소를 지정관리 하는 등 재난 상황시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대피훈련은 지진발생과 동시에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책상 아래로 몸을 대피하고 진동이 멈추면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훈련이다.

박경근 신안 부군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인근 옥외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신안군은 안전한국훈련 3일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제413차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동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신안군 제공

강진 '감염병 예방·홍보 주간' 캠페인 실시

강진만 갈대축제장서 올바른 손 씻기 체험으로 큰 호응 얻어

강진군보건소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이 열리고 있는 생태공원에서 지난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 동안 감염병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진군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감염병 예방·홍보 주간을 운영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축제장 내에서 어깨띠, 배너, 현수막 등을 들고 행사장을 찾은 관람

객, 부스운영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손 씻기 교육용 기기를 이용해 세균을 확인하는 손 씻기 체험은 체험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태령 보건소장은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성 질환의 50~70%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감염병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전운재 기자 wjjun@



강진군보건소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생태공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 동안 감염병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군 제공

목포,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10만여 가구 대상으로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목포시가 11월 6일부터 25일 까지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에 실시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주택 통계 등 신규 통계 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목포시가 실시기관으로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거주와 가구로 목포시는 10만여 가구가 해당된다.

조사내용은 주소, 거주종류, 거주가능 가구 수 등 12개 항목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41명에 대한 교육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



고, 사전 안내와 홍보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므로 시민들께서는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과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무안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 위문

기초수급자 7개 가정에 전기온수매트·이불세트 전달

무안군 삼향읍 주민자치센터(위원장 정연선)는 지난달 31일 자치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소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취약계층 위문에 나섰다.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더불어

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취지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중에서 노부부나 독거노인 등 동절기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7개 가정을 선정해 전기온수매트와 이불세트를 전달했다.

평소 이웃들의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취약 가정을 위문한다는 데 뜻을 모은 자치위원들은 "우리들의 작은 손길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 어려운 형편 속

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치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고민재 기자 mjgo@

김삿갓도 반한 국화동산에서
2019 화순
국화향연
2019.10.25.(금) - 11.10.(일)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17일간